

4 뉴스

의과대학 증원, 공간·기자재 부족부터 해결해야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서울】의과대학(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이 발표되면서 노후화된 시설, 부족한 공간, 부실한 기자재 문제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대학의 의과대학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의학관은 196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노후화된 상태다. 의대 허영범(해부학) 학장은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교수, 대학원생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춘 공간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못해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생 실험, 실습 공간도 현재 입학정원에 맞춘 시설로 유급, 복학 등으로 재학생 수가 늘어난 학년의 수업과 실습은 과밀한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내 소프트웨어 코딩 수업 시설이 구비된 강의실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생물정보학 및 소프트웨어 코딩 과목을 담당하는 이화진(생화학·분자생물학) 교수는 “바이오메딕스 소프트웨어 코딩 과목 같은 경우, 청운관에서 분반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하나의 분반이 수업을 하게 되면 그다음 주에는 다른 분반에서 같은 내용을 진행하고 실습하다 보니 배울 수 있는 내용이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운관과 의대 건물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해부학이나 생리학 등 실습을 위한 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며 “기기도 더



지난 2022년 7월 화재가 발생한 의과대학 1층 105호는 아직 복원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박상희 기자)

“

구성원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춘 공간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못해 많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

”

늘어나야 할 텐데 이러한 여러 이슈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고 전했다.

현미경과 같은 필수 기자재 교체와 확충도 필요하다. 현재 의대에는 현미경을 활용해야 하는 기초의학 실습과목이 존재한다. 하지만 학생 1인당 1대의 현미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허 학장은 “현재 기본 설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미경 같은 필수 기자재 교체와 확충이 필요하다”며 “최근 의대 내 실습 교육 혁신에 맞춰 인터넷 기반 실습, 멀티미디어 활용 실습, VR 활용 실습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2년 7월 발생한 화재로 손상된 1층 실험실은 아직도 복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구시설을 활용하는 교수에게 임시로 연구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복구 계획에 기획조정처 김동준 팀장은 “현재 리모델링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화진 교수는 “의대가 옛날 건물이라 화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이외에도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할 시점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며 “화재 이후 복구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해 건물에 손을 대야 할 부분이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팀장은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선 몇백억이 들어가고 몇 년에 걸쳐야 하는 기간 때문에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의대 동문회 모금 얘기는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건설 금액의 최소 50%는 필요하다 보니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허 학장은 “새 의학관 신축은 의대 교수와 학생, 동문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의대 학장으로서 신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허 학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대학 본부와 의대가 협의해 정할 예정이며, 서울에 있는 비슷한 정원을 가진 의대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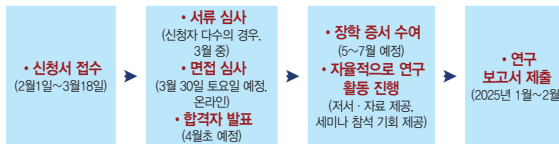
2024년 장학생 모집 공고

인류의 평화와 우정의 확대, 이웃돕기와 사회문제 해결 등 평화와 정의를 위한 활동을 장려하여, 조영식과 이케다 다이사쿠의 사상·정신을 배우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생(별칭: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펠로우)을 선발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개요

- 주관 단체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연구회
- 사업 명 작은 장학회 사업(제4기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펠로우 육성 사업)
- 선발인원 2명 내외
- 장 학 금 1,000,000원(개인별)
※다른 기관의 장학금 수혜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음
조영식 및 이케다 다이사쿠의 주요 저서·자료 제공
연구회가 주관하는 관련 세미나·특강 참여 기회 제공
학습·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기수별 펠로우 활동 참여 기회, 교류활동 참여 기회 등 제공
우수 보고서는 연구회가 발간하는 책에 게재할 수 있음
- 기타 혜택

6. 선발 및 진행절차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장학금 신청

- 신청기간 가. 신청기간 : 2024년 2월 1일(목) ~ 2024년 3월 18일(월)
나. 신청방법 : 신청서류(하단 내용 참조)를 이메일로 접수
다. 접수주소 : cipeace2050@gmail.com(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연구회 사무국)
※ 마감일(3월 18일 24시)까지 도착한 서류만 접수됨.
※ 오프라인 서류는 받지 않음, 방문 접수도 없음.
- 신청자격 (아래 모든 조건에 해당되어야 함) 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적 중인 자(전문대 포함, 휴학생 및 입학 예정자 포함).
나. 인류의 평화나 우정의 확대, 이웃돕기나 사회문제 해결* 등 평화와 정의를 위한 활동 경험이 있는 자(1가지 이상의 활동 경험).
※ 사회문제 해결: 환경보호 활동, 인권보호 활동, 교육·복지 봉사활동, 문화 보급 활동, 이타적인 경제·산업활동,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을 촉진한 활동 등
다. 조영식 및 이케다 다이사쿠의 사상·정신을 학습할 의욕이 있는 자
※ 신청 시점에서 관련된 연구 실적이나 지식의 유무는 심사와 무관함, 의욕을 중심으로 심사됨.
- 신청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한글 파일로 송부함)
나. 서약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송부함)
※ 확인·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출력 후 사인을 하고, 스캔한 파일을 송부함.
다. 활동 실적 증빙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함.
※ 예: 활동인증서, 경력증명서, 공식 보고서, 보도자료, 사진 자료 등
※ 제출이 필요한 증명서에 관해서 신청서를 참조로 연구회가 합격자에게 통보함.

라. 대학·대학원 재적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등)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함.
※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필요한 증명서를 합격 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학생 선정 취소 및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해야 함.

장학생 의무사항

- 장학 증서 수여식 참석 : 2024년 5월~7월(예정)
- 연구 보고서 제출 : 2025년 1~2월
※ 분량과 형식: 한글 파일 기본 형식으로, A4 용지 10~20페이지 내외를 원칙으로 함.
※ 내용: 다음 유형 중 합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함(합격 후 결정).
① 독후감형 : 조영식 및 이케다 다이사쿠의 주요 저서를 최소 1권씩 완독 후 독후감 작성.
② 학술논문형 : 조영식 또는 이케다 다이사쿠의 사상·정신을 주제로 하거나 이를 활용한 학술논문.
③ 기타형 :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와 관련한 주제로, 연구회와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 기관이나 학교·수업 등에 제출한 기존 리포트나 논문을 중복·수정 제출할 수 없음.
※ 우수 보고서는 연구회가 발간하는 책에 게재할 수 있음.
- 연구 발표 : 상황에 따라 실시 여부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함.
※ 연구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특강, 교류회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권장함.

연구회 청년회원 안내

※ 본 연구회에서는 선발형의 펠로우 제도 외에 일반 가입형의 청년회원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40세 이하, 소속 무관, 연회비 전액 면제, 연구회 행사 참여 기회 및 펠로우와 동일한 연구 기회 제공 등).

신청 문의

조영식·이케다 다이사쿠 연구회 사무국
이메일: cipeace2050@gmail.com / 전화: 010-6244-3973